

# BTS 조롱한 호주방송사, 뭇매 맞고 사과

호주 한 방송사가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팬들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19일 방송된 호주 채널9 프로그램 '트웬티 투 원' (20 to One) 출연진들은 방탄소년단을 조롱했다.

여자 진행자가 "당신이 들어보지 못한 위대한 밴드를 소개한다."며 방탄소년단을 언급하자 남자 진행자는 "들어본 적 없다."라고 말했다.

한 출연자는 BTS의 인기를 남북문제에 빗대며 "김정은이 남자 아이들을 좋아하면 한국 전쟁 문제가 없어질 수 있겠다.", "한국의 뭔가가 미국에서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했다. 더 나쁜것(폭탄, 미사일)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빈정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것을 두고는 "한국인 중 최초로 미국에서 1위를 한 그룹"이라면서 "인상적인 것은 그중 멤버 한 명만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춤도 굉장하다. 노래는...패스할 수 있다."며 한 멤버가 노래하다 실수하는 영상을 보여줬다.

또 BTS의 유엔 연설과 관련해서도 "그 내용이 아마 헤어스프레이에 대한 것이었을 걸"이라고 비아냥댔다.



심지어 한 출연자는 "방탄소년단 팬들은 하드코어"라면서 "한번은 '멤버 중 게이가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를 엄청 공격했다. 그냥 수학일 뿐인데"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방탄소년단 팬클럽 아미는 SNS에 관련 해시태그(#channel9apologize 등)를 올리며 방송사의 사과를 촉구했다. 팬들은 "방송이 방탄소년단의 성공을 무시하고, 외국인 혐오와 인종 차별적인 사고방식으로 편견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프로그램 측은 SNS 상에 영문과 한글로 "WE APOLOGISE FOR ANY DISRESPECT AND OFFENCE TAKEN. 무례나 불쾌하게 생각하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 홍석천 화보, 미국 플레이보이지 장식

플레이보이 코리아가 기획, 촬영한 홍석천(사진)의 기사와 화보가 2019년 미국 플레이보이 여름호에 실려 눈길을 끌었다. 이는 지난 3월 플레이보이 코리아가 홍석천과 함께한 20Q 기사와 화보를 본 미국 플레이보이 편집팀의 적극적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



미국 플레이보이 편집팀은 플레이보이 코리아의 화보를 소개하는 기사에서 홍석천을 "자신이 성수자임을 밝힌 한국 최초의 연예인"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2000년, 커밍아웃(coming-out)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커밍아웃 직후 정말 힘들게 살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스스로 먼저 솔직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는 홍석천의 답변을 기사에 실었다.

미국판 플레이보이의 2019년 여름호는 '젠더 & 섹슈얼리티 On Gender & Sexuality' 특집호이다. 어느 시대에서든 성적 자유를 외쳐온 플레이보이답게 미국 플레이보이 여름호에는 음악, 영화, 미술,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평범함'의 정의를 넓혀온 셀러브리티들이 대거 등장한다.

6월 프라이드(pride)의 달, 미투(#METOO) 운동, 페미니즘, 성 소수자(LGBTQ) 등 전 세계의 성적 지향도를 총망라한 것이다.

이번 화보에서 홍석천은 블랙 롱 드레스와 킬 힐을 신었으며 배트맨 가면과 액세서리를 걸쳤다. 소위 '여성적' 혹은 '남성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짙게 밴 의상을 입더라도,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은 '홍석천'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역시나 그는 익숙하지 않은 킬 힐을 신고 당당하고 멋진 포즈를 취했다.

# 북 매체, 영화 '기생충' 인기 전하며 한국 비판

북한의 대외선전매체가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신랄하게 풍자한 영화 '기생충'을 소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의 오늘'은 18일 '한편의 영화가 시사해주는 것은'이란 제목의 글에서 '기생충' 영화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남조선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 편의 영화는 사람들에게 자본주의제도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악성종양을 안고 있는 썩고 병든 사회이며 앞날에 대한 희망도 미래도 없는 사회라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깨닫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화는 반지하에서 가족 성원 모두가 직업이 없이 살아가는 가난한 집과 초호화주택에서 풍청거리며 살아가는 부자집을 대조시키면서 생계를 위해 아득바득 노력하며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빈곤층과 인간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마저 쥐버리고 거들먹거리는 부자들의 행태를 해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현재 남조선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반인민성과 날로 심화되는 극심한 경제위기로 하여 전체 주민의 16.5%가 절대빈곤층으로 전락되었고 부유층과 빈곤층 사이의 소득 격차는 무려 59배로 늘어났으며 부와 가난의 대물림으로 하여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유행되며 사회 양극화와 빈부 차이가 극도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면에 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된 우리 공화국은 누구나 평등하고 고된 삶을 누리고 있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며 북한 체제를 찬양했다.

1269호 숫자퍼즐 정답								
9	7	1	6	8	2	4	5	3
8	2	3	5	7	4	1	9	6
6	4	5	1	3	9	8	2	7
1	6	4	8	2	7	5	3	9
2	3	8	9	4	5	6	7	1
5	9	7	3	6	1	2	8	4
3	8	2	7	1	6	9	4	5
4	1	9	2	5	3	7	6	8
7	5	6	4	9	8	3	1	2

종교 무관  
주7일 예약상담

## 무속(巫俗), 점술(占術), 학술(學術)의 명확한 구분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무속(巫俗)과 점술(占術) 그리고 학술(學術)에 대해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무속(巫俗)의 경우는 한국의 전통적인 샤머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당(巫堂)이라는 중재자가 신령(神靈)과 사람을 중재해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이다. 무속(巫俗)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신(神)이라는 존재에 의지해서 굿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기도 하지만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진 학문이라고 볼 수 없다. 점술(占術)의 경우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아보기 위해 점(占)을 치는 것으로 말 그대로 하늘에 물어보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앞날에 대해 알고자 점(占)을 치는 행위로서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길(吉)이라고 보거나 또는 뒷면이 나오면 흉(凶)하다고 보는 것이다. 점술(占術)의 경우는 무속처럼 신(神)적인 존재에 의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 무식하게 무작위로 그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로 과학적인 객관성을 가진 학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가장 대표적인 점술(占術)이 바로 주역괘(周易卦)에 의한 풀이나 타로 카드로 보는 운세풀이가 된다. 반면에 학술(學術)의 경우는 초자연적인 신(神)과 같은 존재나 무작위로 얻어질 수 있는 점술(占術) 같은 것은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관찰해서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순수하게 자연과학적인 관찰과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점에서 학술은 앞에서 설명한 무속이나 점술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다. 동양의 학술(學術)적인 접근법으로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의학(韓醫學)이나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 그리고 천문학(天文學)이 있다. 이렇듯 무속(巫俗)과 점술(占術), 학술(學術)은 완전히 다른 종류로서 구분해야 한다.

★ 사주명리 · 풍수 · 수맥감정 전문 ★

평생사주 총운	직업, 사업, 재물	궁합, 애정	<div style="font-size: x-large; font-weight: bold;">714.534.4645</div>
상호, 이름 작명	풍수지리 출장 감정	수맥 탐사 전문	<p style="font-size: small;">9618 Garden Grove Blvd., #108, Garden Grove, CA 92844</p>

정교한 사주해석 전문

청해역학학술원